

HEREN

트루 프리미엄 멤버십 매거진 HEREN IS LOVE

September 2013

ULTIMATE FEMININITY



2013 F/W Bag&Shoes

지금, 베트남 다낭이 뜨는 이유
통의동에 터 잡은 아름답기 신사옥
현대판 바우하우스, 디자인 아카데미 에인트호번
Anti-Aging Beauty Items

PIAGET





1 미닫이 나무문을 달아 안마당으로 햇빛을 가득 들일 수도, 비바람을 막아낼 수도 있다. 2 아름지기 신사옥 프로젝트에 참여한 **홍승혜 작가**, 김종규 교수, 김봉렬 교수(왼쪽부터). 3 아름지기 신사옥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곳 중 하나인 이사장실의 통창은 경북궁 서쪽의 풍경을 시원하게 끌어 안는다. 4 2층에서 4층까지 이어지는 사무 공간은 윗마당을 통해 다른 공간과 소통할 수 있다. 5,6 회의실 바닥과 한옥에 쓰인 목재는 적삼목으로 **홍승혜 작가**의 레드 오크 가구와 색상이나 질감 면에서 잘 어우러진다.



면하는 상황 등을 두루 살펴야 했죠. 특히나, 주어진 대지가 그리 넓지 않았기 때문에 각 공간을 적층하기로 했습니다. 전형적인 공간감을 살리면서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점유'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김종규 교수가 이야기했듯 전통 한옥과 모던한 건물을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 고민의 출발점이자 건축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였다. 견제율이 한정되어 있어 한옥이 가지는 공간감을 살리는 데 한계가 있었기에 완전히 시각을 바꾸었다. 한옥과 마당을 2층으로 올리고, 교류의 공간으로 삼고자 했던 한옥 공간을 1층과 3, 4층을 이어주는 중심이 되도록 한 것. 또, 사무 공간, 이벤트 공간, 전시 및 교류 공간, 연구 공간 등 여러 목적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곳이다 보니 건물의 외형적인 모습이 어색하지 않으면서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한옥이 2층으로 올라가게 되고 용도에 따라 공간이 배치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옥을 감싸 안는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 마당을 중심에 두고 마자로 빙 둘러 앉은 건물들 덕분에 한옥 토시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도심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가 아닐까.

한옥은 예전 아름지기 안국동 한옥의 전시 기능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전

시를 관람할 때 신발을 신고 벗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입식 한옥으로 설계한 것이 인상적이다. 한편 한옥의 한쪽은 전통 한옥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 좌식으로 꾸몄다. 조수연 도배 장인이 방 안의 도배를 마무리했고, 문살에는 삼배창을 덧대어 방충망 본연의 기능 외에도 부드러운 빛을 끌어들이도록 했다. 김봉렬 교수는 아름지기 한옥이 갖는 '상징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을 품고, 돌보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아름지기의 의지가 사옥 전체에서 은근하게 드러났으면 하는 것이 아름지기의 주문이었어요. 한옥과 양옥의 완벽한 일치를 고심한 건 이 때문입니다." 한옥은 오브제로서 강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요란하게 만들면 건축 전체를 흐트리게 된다. 아름지기 한옥이 군더더기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미니멀한 김종규 교수의 설계, 현대적인 기능들과도 잘 어우러질 수 있었던 건 아름지기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인 전통의 현대화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깊이 고심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봉렬 교수는 또 마당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다. "마당은 앞으로 열릴 많은 행사를 위해 쓰일 겁니다. 그때마다 한옥이 행사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문을 열어 내부와 외부가 통하도록 해 하나의 큰 공간이 되기도 할 테지요."